

山峽의午後

내 노래는 오히려
젊은 산울림.

골자기 길에
떠러진 그림자는
너무나 슬프구나.

午後의 瞑想은
아—— 졸려.

一九三七、九、

산협의 오후

내 노래는 오히려
젊은 산울림.

골짜기 길에
떨어진 그림자는
너무나 슬프구나.

오후의 명상은
아—— 졸려.

1937. 9.